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0. Vol. 25, No. 3, 585 - 610

여대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최 희 숙
삼성사과나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사

주 영 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여대생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18~29세의 여대생 350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대인관계 척도, 정신화 척도, 분노반추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경로와,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신화 실패를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화 실패가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 있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신화 실패로 가는데 직접효과를 갖는 동시에 분노반추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를 가지며,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도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여대생, 경계선 성격특성, 대인관계문제, 정신화, 분노반추

† 이 논문은 제1 저자 최희숙(2018)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주영아, (06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교수, Tel:02-584-6851, E-mail: juyou61@kcgu.ac.kr

www.kci.go.kr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 양육자인 부모를 만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배워가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기 쉽다. 부모에서 형제, 자매로 관계는 확대되어지고, 이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서로 간에 욕구와 기대가 다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문제에 직면하고 고민하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Sarason, Pierce, & Sarason, 1990),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대인관계문제는 두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맥락에 대한 왜곡된 인지로 인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술의 부족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최임정, 심혜숙, 2010). 우리는 상담현장에서 많은 경우 불안과 우울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대인관계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혜원, 2013; 배애진, 심혜원, 2018; 조윤경, 현명호, 2020).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역시 사회적 관계 중 하나로서 일상에서의 관계 연장과 더불어 좀 더 특별한 관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있어 중요한 대상이 되어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의 경험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고 성장을 안내하게 되므로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상담영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는 불편한 정서문제 뿐만 아니라, 성격장애, 학업, 직업, 수면, 정신 병리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박진숙, 2007; 정남운, 2001; 조윤경, 2002).

DSM-III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성격장애 진단과 분류가 연구되어 왔는데, 성격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경험과 행동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서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 조절 중 2개 이상에서 과하게 벗어나 나타나야 한다(권석만, 2013). 특히 이들 성격장애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기 파괴행동, 극단적인 정서변화, 충동성 등의 부적응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는 안정적인 자기상을 가지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공허감을 경험하며 특히 거절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곤란함을 가지고 있다(김지선, 현명호, 2012; 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Paris, 2007). 따라서 유기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만일 이상화했던 상대방이 자기를 돌봐주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상대방을 급격하게 평가절하 하며 불신을 하고 밀어내는 행동이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관계패턴을 보인다. 강렬하고 빠르게 친밀함을 느꼈던 대상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의 감정을 느끼며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이들은 불안함으로

www.kci.go.kr

인하여 대상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다. Kimberly와 Glenn(2007)은 이들이 이런 의존적 특성으로 인해 낮은 자기 확신, 지나친 친절함, 복종적, 관계에 있어 영향력이 작음, 순종적, 요구의 어려움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은 성격장애만큼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을 보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Trull, 1995),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다(Beck, Freeman, & Davis,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내담자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적 변인을 찾고자 한다.

최근 DSM-5에서는 성격장애 평가에 있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격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격특성의 각 하위특질이 차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APA, 2013),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임상집단보다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윤연, 장현아, 2016; 임종민, 장문선, 이종환, 2019; 최소연, 이민규, 육영숙, 2017).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발병률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았고,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 진입 시기에 시작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APA, 2013; Gunderson & Phillips, 1991; 강현정, 2009에서 재인용), 연구대상을 여대생으로 삼아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정서조절의 곤란함(박선메, 2017; 우희정, 박경, 2014; Domes, et al., 2008), 인지도식의 왜곡(권석만, 2013; 윤소리, 김정민, 서유진, 2017; Beck, Davis, & Freeman, 2015), 유기불안과 애착형성의 어려움(APA, 2013; Lieb, Zanarini, Schmahl, Linehan, & Bohus, 2004; Putnam & Silk, 2005), 충동성(임선영, 이영호, 2017; 최소연 외, 2017; Sansone & Sansone, 2013)으로 정리할 수 있다.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정서적 취약성'을 제시하며 이들이 갖는 특징으로 높은 정서강도, 정서 자극에 대한 예민성, 일반 정서수준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는 지지되었는데,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정서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Yen, Zlotnick, & Costello, 2002). 또한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은 부정적 인지도식으로 인하여(Beck, Davis, & Freeman, 2015), 타인과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거부와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게 되며,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자신의 경험과 외부사건을 왜곡하게 된다(권석만, 2013).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과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경계선 성격특성의 개인은 자신의 역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개인의 정신병리적 현상 즉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화(Mentalization)가 보호요인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Bouchard et al., 2008; Chiesa & Fonagy,

www.kci.go.kr

2014), 치료의 기본 전제는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내담자의 증상 및 대인관계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Bateman & Fonagy, 2013). 정신화란 '사고와 감정에 대한 사고와 감정(thinking and feeling about thinking and feeling)'(Allen, Fonagy, & Bateman, 2008)으로, 개인의 감정, 욕구, 신념 등에 기반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내재적, 외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Bateman & Fonagy, 2006). 이것은 Main(1991)의 상위인지 자각능력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화 능력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객관적 현실이기보다 자신이 취하는 관점을 통해 비추어진 주관적 현실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정신화 능력의 발달은 일어난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자동적인 반응하는 대신 그 현상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은, 정남운, 2018). 정신화는 개인이 출생과 더불어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능력인데, 대상과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상을 가지게 되면 내적세계와 외적세계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정신화 실패에 이르게 된다. 첫째, 정신적 동등모드로서 외부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자신의 내적세계와 같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마음을 통해 투사된 주관적 현실을 실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게 되어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불편한 감정을 진실이라고 믿고 고통 받게 된다. 둘째, 가장모드로서 자신의 내적인 세계와 현실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타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주관적인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된다. 셋째, 목적론적 모드로서 타인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찰한 타인의 행동이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 자신의 관점에서 실재 보여지는 확인된 행동을 통해서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 Fonagy(2015)에 의하면 불완전애착으로 인해 정신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후 적절한 대상과 애착관계를 다시 잘 맺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대상의 모습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지각하여 표상화 함으로써 개선되어질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애착관계를 맺는 대상들 사이의 상호조절(mutual regulation)에 의해 정신화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최정숙, 김완일, 2017). 그러므로 발달된 정신화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간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Wallin, 2010). 즉, 정신화는 현재 순간에 발생하는 본질에 대한 자각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신 상태까지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해 준다(이문희, 이수림, 2014; Allen et al., 2008). 이렇게 정신화 능력이 회복된다면 자기 성찰이 가능하게 되어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Luyten, Houdenhove, Lemma, Target, & Fonagy 2012).

www.kci.go.kr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 특성을 가진 내담자의 대인관계문제를 줄이는데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통한 정신화 향상이 중요한 치료적 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은 정서적,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감정을 가지기 쉽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한다. 개인이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분노라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을 계속 반추하게 되는데(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러한 분노반추는 분노반응을 지연시키는 동안에 분노반응 방법이나 순간들을 생각한다(Sell, Toddy, & Cosmides, 2009). 그러나 분노 사건에 대한 반추가 높을수록 작은 분노촉발 사건에도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집중력이 저하되어 일의 효율성과 문제해결력이 떨어지며(Ellis & Tafrate, 1997), 우울, 불안,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한다고 한다(Thomsen, 2006).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분노반추는 분노감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경계선 성격특성과 분노반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Baer와 Sauer(2011)에 의하면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관계에서 우울반추에 비해 분노반추가 더 영향력이 있으며, 경계선 성격 증상의 심각성이 부정적인 분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분노반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치심이 분노로 전환하는 과정은 내부의 혐오 경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개념화된 분노반추에 의해 촉진된다고 제안한다(최두환, 2013; Gardner & Moore, 2008).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쉬운데 이 강렬하고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식된 불의와 남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생각을 반복한다. Selby와 Joiner(2009)는 분노반추가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과 자해 및 폭식과 같은 충동적 행동 사이를 매개하고 있으며, 부정적 감수성과 경계선 성격장애 특징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Baer & Sauer, 2011).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복 확대되었는데, 수많은 형태의 반추 중 분노반추가 경계선 성격장애 특징과 가장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Bushman et al., 2005; Peled & Moretti, 2010; Peters, Geiger, Smart, & Baer,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하나,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사건에 대한 흥분과 반응성의 크기를 말하는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강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경험하는 정서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Larsen & Diener, 1987), 이들은 분노, 좌절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외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은 정서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분노감정에 더 흥분하며 반응의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www.kci.go.kr

그런데 분노반추로 인하여 분노감정이 더 크게 자각되어지면, 그 분노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일 수 없고 주관적 감정에 더 치우쳐 바라보고 인식하게 된다. 인지적 정신화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없게 되며, 정서적 정신화 차원에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히 인식할 수 없게 되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김경은, 정남운, 2018). 즉, 분노반추는 정서적 정신화와 인지적 정신화를 실패하게 만들어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분노반추에 의해 더 크게 인식된 분노감정은 정신화 실패 상태인 '정신적 동등모드'를 출현하게 만들어 자신의 내부세계와 외부세계가 구분되지 않게 된다. 정신적 동등모드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생생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김경은, 2016), 정서조절 능력이 매우 취약하게 된다. 정신화는 스트레스와 같은 각성상태, 특히 애착관계 맥락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개념으로(Allen, Fonagy, & Bateman, 2008),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반추를 하는 것은 정신화 실패로 이어져서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역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개인이 인지적 왜곡으로 인하여 사건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여 '정신적 동등모드'에 이르게 되어 즉, 정신화가 실패하게 되어 이로 인해 인식된 분노라는 정서를 해결하고자 인지조절전략인 분노반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노반추에서 정신화 실패로 가는 경로의 연구모형과 이와 반대로 정신화 실패에서 분노반추로 가는 경로의 경쟁모형을 함께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선행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라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의 영향과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의 내담자들이 대인관계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때 정신화와 분노반추가 치료적 변인으로 검증되어 상담 장면에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정신화 실패, 분노반추는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신화 실패가 매개할 것이다. 다섯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매개할 것이다. 여섯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신화 실패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만 18세~29세 여대생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령은 18~20세는 58명(16%), 21~24세는

www.kci.go.kr

224명(64%), 25~29세는 68명(19.4%)이었으며, 대학은 2년제가 14명(4.0%), 3년제가 15명(4.3%), 4년제가 318명(90.9%), 5년제가 3명(0.8%)이었다. 1학년은 23명(6.6%), 2학년은 47명(13.4%), 3학년은 61명(17.4%), 4학년은 158명(45.1%), 5학년은 2명(0.6%), 휴학생은 59명(16.9%)이었고, 전공은 인문계열 76명(21.7%), 사회계열 105명(30%), 이공계열 89명(25.4%), 사범계열 19명(5.4%), 예체능계열 36명(10.3%), 의간호계열 25명(7.2%)이었다.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213명(60.9%)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지역이 137명(39.1%)이었다.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이 연구에서는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는 객관적 자기보고형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특징과 관련된 24문항을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를 사용하였다. 홍상황 등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매우 낮은 1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불안정 6문항(예: 내 기분은 매우 갑작스럽게 변한다.), 정체감 문제 6문항(예: 매우 친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부정적 관계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덕스럽다.), 자기 손상 6문항(예: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0점)' ~ '매우 그렇다(3점)'으로 평가되며, 전체 점수 범위는 0~69점으로 국내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원점수가 39점 이상인 집단은 완전한 증후군으로 발전되기 이전 상태로 경계범위에 해당하며, 이들은 임상집단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홍상황, 김영환, 1998).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다. 이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8,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55~.7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홍상황 등(2002)이 제시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 KIIP-C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IIP-C(대인관계 원형검사)와 IIP-PD(대인관계 성격장애검사)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척도(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에서 문항 변별도, 위치모수, 문항정보에 근거하여 추출된 총 40문항이며,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범위는 40점에서 2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통제지배(PA) 5문항(예: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자기중심성(BC) 5문항(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냉담(DE) 5문항(예: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FG) 5문항(예: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비주장성(HI) 5문항(예: 원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과순응성(JK) 5문항(예: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

www.kci.go.kr

가 어렵다.), 자기희생(LM) 5문항(예: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과관여(NO) 5문항(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의 8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69~.93이었고,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는 .61~.89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6~.85로 나타났다.

정신화 척도. 이 연구에서는 Hausberg 등(2012)이 제시한 자기보고식 정신화 설문지를 최현아(2014)가 번안한 정신화 척도(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거부적 자기조망 4문항(예: 누군가 내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그가 나와의 교제를 지루해 하는 것이다.)에서 높은 점수는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정서인식 4문항(예: 종종 나조차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에서 높은 점수는 정서를 왜곡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정신적 동등모드 4문항(예: 만약 누군가 나를 지적하거나 공격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질 것이다.)에서 높은 점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3문항(예: 때때로 감정들이 나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에서 높은 점수는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최현아(201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69~.77로 나타났다. 최정숙(2017) 연구에서도 문항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7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62~.67로 나타났다.

분노반추 척도. 이 연구는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Golub과 Cromwell(2001)이 분노사건에 대한 비의도적인 반복적 사고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분노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 K-ARS)를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Likert형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기억반추 8문항(예: 나를 화나게 한 사건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원인반추 3문항(예: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보복반추 5문항(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가 난다.)으로, 이근배와 조현춘(2008)의 연구에서 문항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80~.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SPSS 22 및 AMOS 2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도구들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을

www.kci.go.kr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계선 성격특성, 분노반추, 정신화 실패,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각 가설의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모형화를 따랐다. 먼저 단일 요인에 대한 문항 묶음을 만든 후에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를 확인하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 statistic,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와 CFI 의 경우 0.9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RMSEA의 경우 0.05이하면 적합도가 매우 좋고, 0.08이하면 적절하며, 0.1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통해 최종모형을 도출하고,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관련 변인들의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연구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으므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916, 1.864, 1.709로 모두 10 이하이므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들은 분노반추, 정신화 실패 및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16 ~ .65, p < .01), 정신화 실패의 하위요인들과 분노반추 및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 또 분노반추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도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17 ~ .59, p < .01).

www.kci.go.kr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350)

	1	1-1	1-2	1-3	1-4	2	2-1	2-2	2-3	2-4	2-5	2-6	2-7	2-8	3	3-1	3-2	3-3	3-4	4	4-1	4-2	4-3
1 **경계선성격특성**	1																						
1-1 정서적불안정성	.864**	1																					
1-2 정체감문제	.823**	.626**	1																				
1-3 부정적관계	.825**	.631**	.635**	1																			
1-4 자기손상	.782**	.560**	.450**	.536**	1																		
2 **대인관계**	.598**	.527**	.536**	.475**	.428**	1																	
2-1 통제지배	.578**	.517**	.371**	.509**	.511**	.656**	1																
2-2 자기중심성	.405**	.393**	.299**	.290**	.339**	.725**	.587**	1															
2-3 냉담	.356**	.375**	.320**	.242**	.222**	.770**	.359**	.664**	1														
2-4 사회적억제	.404**	.412**	.418**	.302**	.192**	.815**	.364**	.560**	.829**	1													
2-5 비주장성	.332**	.296**	.391**	.237**	.162**	.758**	.175**	.479**	.694**	.743**	1												
2-6 과순응성	.456**	.346**	.423**	.364**	.367**	.788**	.378**	.367**	.458**	.535**	.626**	1											
2-7 자기희생	.437**	.333**	.446**	.367**	.299**	.675**	.358**	.186**	.245**	.387**	.447**	.739**	1										
2-8 과관여	.545**	.415**	.459**	.485**	.448**	.635**	.685**	.399**	.172**	.255**	.179**	.492**	.598**	1									
3 **정신화**	.634**	.601**	.587**	.522**	.379**	.775**	.531**	.560**	.557**	.646**	.571**	.588**	.554**	.506**	1								
3-1 거부적자기조망	.444**	.443**	.411**	.339**	.263**	.631**	.423**	.565**	.517**	.554**	.487**	.419**	.352**	.351**	.831**	1							
3-2 정서인식	.499**	.460**	.452**	.395**	.333**	.648**	.382**	.492**	.502**	.527**	.507**	.533**	.479**	.349**	.864**	.646**	1						
3-3 정신적동등모드	.548**	.498**	.554**	.495**	.272**	.693**	.487**	.445**	.448**	.593**	.516**	.517**	.511**	.520**	.844**	.597**	.600**	1					
3-4 정서조절	.647**	.632**	.549**	.527**	.420**	.604**	.485**	.349**	.378**	.467**	.375**	.491**	.513**	.473**	.792**	.507**	.629**	.577**	1				
4 **분노반추**	.590**	.610**	.478**	.503**	.354**	.475**	.397**	.352**	.295**	.373**	.262**	.293**	.345**	.486**	.574**	.411**	.438**	.552**	.521**	1			
4-1 기억반추	.581**	.596**	.488**	.490**	.343**	.478**	.385**	.328**	.300**	.379**	.284**	.309**	.353**	.456**	.561**	.401**	.422**	.561**	.488**	.955**	1		
4-2 보복반추	.580**	.600**	.440**	.493**	.377**	.473**	.436**	.431**	.324**	.371**	.260**	.259**	.263**	.431**	.530**	.400**	.404**	.478**	.497**	.887**	.774**	1	
4-3 원인반추	.327**	.351**	.267**	.293**	.170**	.232**	.168**	.117*	.091	.174**	.081	.157**	.272**	.304**	.378**	.244**	.295**	.358**	.373**	.762**	.632**	.541**	1
평균	27.51	7.80	8.68	6.21	4.82	103.20	10.97	11.09	12.97	14.08	14.02	13.09	14.39	12.59	42.58	11.10	11.27	11.56	8.65	35.56	18.12	10.25	7.20
STD	9.73	3.24	3.08	2.33	3.16	23.94	3.79	3.90	4.27	4.49	4.32	4.00	4.00	4.04	9.49	2.89	2.95	3.14	2.38	9.92	5.42	3.35	2.33
왜도	0.48	0.39	0.12	0.43	0.90	-0.06	0.38	0.50	0.06	0.08	-0.03	0.12	-0.16	0.14	-0.41	-0.22	-0.25	-0.27	-0.10	0.32	0.32	0.50	0.16
첨도	0.48	0.18	-0.38	0.46	1.23	-0.51	-0.41	-0.32	-0.44	-0.66	-0.62	-0.62	-0.61	-0.73	-0.20	-0.16	-0.19	-0.11	-0.38	-0.43	-0.40	-0.32	-0.64
신뢰도	0.88	0.74	0.65	0.55	0.76	0.94	0.80	0.83	0.82	0.85	0.85	0.80	0.76	0.77	0.87	0.62	0.66	0.67	0.62	0.93	0.90	0.80	0.84

** $p < .01$ * $p < .05$.

www.kci.go.kr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는 많은 논문에서는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문항꾸러미를 제작한 후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이 검사 개발이나 타당화와 같이 개별문항의 특성과 수행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면, 개별문항이 구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의 개별문항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구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 즉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고 추정하는 것에 있다면, 문항묶음 수준에서만 측정모형이 성립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Little, Rhemtulla, Gibsom, & Schoemann, 2013; Matsunaga, 2008). 문항묶음을 사용하면 분포의 비정규성 문제가 줄어들 수 있으며,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모수 추정이 가능하고, 모형적합도가 향상되는 등의 통계적 이점을 보인다(Bandalos, 2002). 또한 많은 연구들이 문항묶음의 개수가 적을수록 모형적합도는 높았지만, 동시에 추정치는 더 편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Bandalos, 2002; Rogers & Schmitt, 2004).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Matsunaga(2008)와 Little 등(2013)은 각 요인 당 세 개 정도의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문항묶음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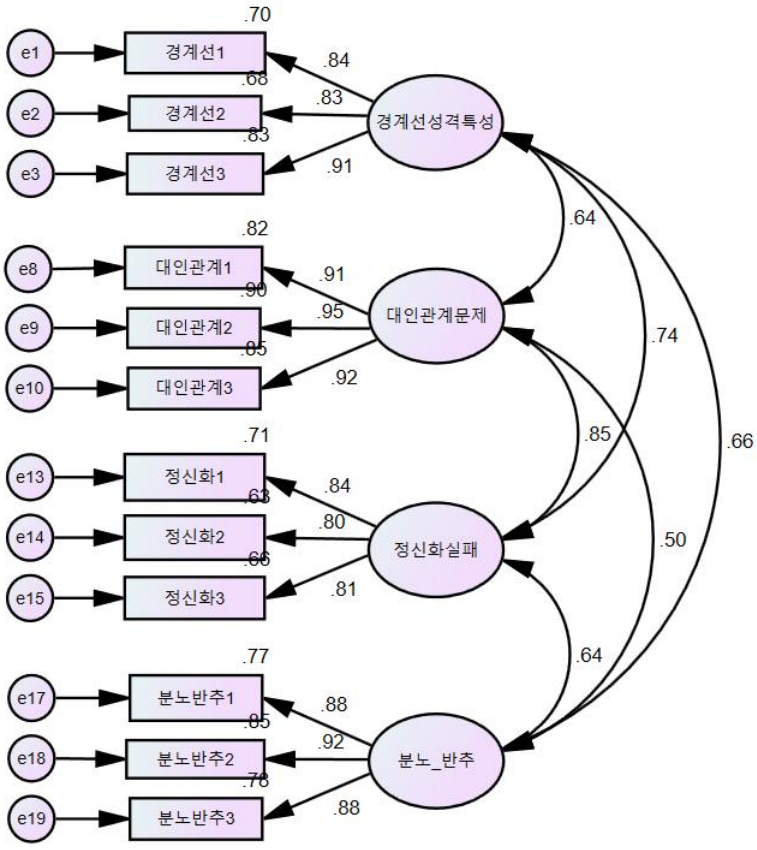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www.kci.go.kr

하여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항묶음의 방법은 일요인(single-factor)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후, 요인부하가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차례로 짝지어 각 묶음에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Little et al., 2013).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검증에 앞서, 각각의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특성, 정신화 실패, 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 4개 잠재변인과 12개 측정변인을 포함한 상관을 가정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chi 2$ = 126.05, df = 48, TLI = .971, CFI = .979, RMSEA = .068로 나타났다. 이는 Tucker-Lewis Index(TLI)의 유의미한 기준치인 TLI > .9, Comparative Fit Index(CFI)의 유의미한 기준치인 CFI > .9, RMSEA의 유의미한 기준치인 RMSEA < .1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각각의 측정변인들은 높은 상관을 보여야 하는데,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경계선 성격특성이 .83~.91, 정신화 실패가 .80~.84, 분노반추가 .88~.92, 대인관계문제가 .91~.95 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350)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t	β
경계선 성격특성	→	경계선3	1.20	.57	21.00***	.91
	→	경계선2	1.06	.57	18.47***	.83
	→	경계선1	1.00			.84
정신화 실패	→	정신화3	1.05	.06	17.80***	.81
	→	정신화2	.99	.06	17.26***	.80
	→	정신화1	1.00			.84
분노반추	→	분노반추3	.96	.04	22.90***	.88
	→	분노반추2	1.03	.04	24.60***	.92
	→	분노반추1	1.00			.88
대인관계 문제	→	대인관계1	1.00			.91
	→	대인관계2	1.04	.03	30.50***	.95
	→	대인관계3	1.04	.04	28.32***	.92

*** p < .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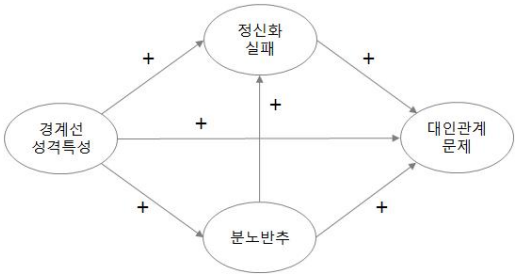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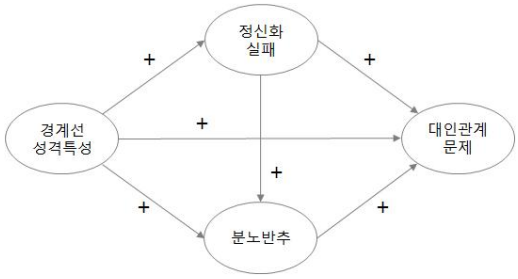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 각각을 통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분노반추가 정신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직접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신화 실패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고, 정신화 실패의 과정에 분노반추가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이다. 경쟁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는 반대로 정신화 실패가 분노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는지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동치모형(equivalent model)으로, 모형적합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및 부트스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의 매개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은 그림 5 및 표 4,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는 표 6에,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은 그림 6 및 표 5에,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는 표 7에 각각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은 그림 5 및 표 4와 같이,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와,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정신화 실패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55,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반추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β = .66, p < .001. 또한 분노반추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분노반추에서 정신화 실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β = .28, p < .001, 정신화 실패는 대인관계문제에 유

표 3. 모형 간 적합도 비교 (N=350)

	x^2	Δx^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26.05	-	48	.971	.979	.068
경쟁모형	126.05	-	48	.971	.979	.068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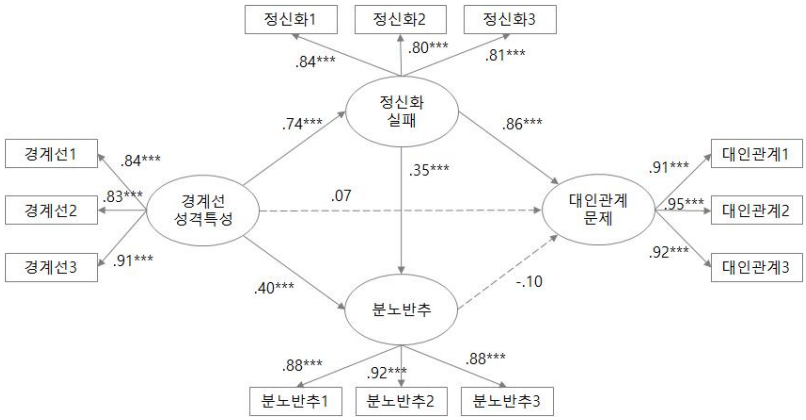

그림 5.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01$.

표 4.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N=350)

경 로			*B*	*S.E.*	β	t
경계선 성격특성	→	분노반추	1.08	.09	.66	12.03***
경계선 성격특성	→	정신화 실패	.91	.11	.55	8.14***
경계선 성격특성	→	대인관계문제	.12	.11	.07	1.05
분노반추	→	정신화 실패	.28	.06	.28	4.42***
분노반추	→	대인관계문제	-.10	.06	-.10	-1.84
정신화 실패	→	대인관계문제	.84	.06	.86	10.8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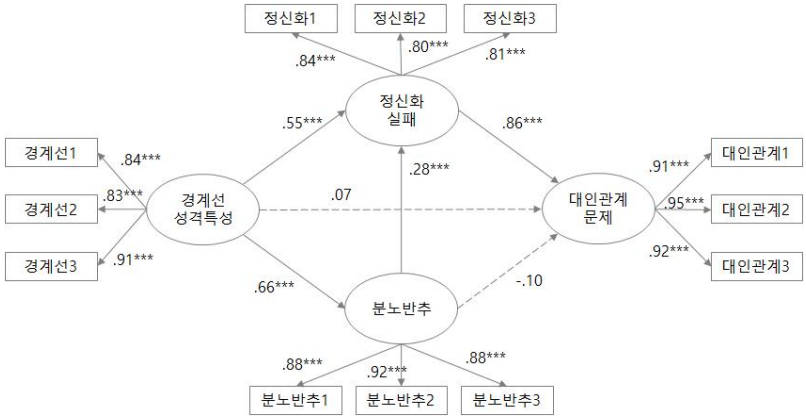

그림 6.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01$.

www.kci.go.kr

표 5.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N=350)

경 로			*B*	*S.E.*	β	*t*
경계선 성격특성	→	분노반추	.66	.17	.40	5.24***
경계선 성격특성	→	정신화 실패	1.22	.10	.74	12.64***
경계선 성격특성	→	대인관계문제	.12	.11	.07	1.05
정신화 실패	→	분노반추	.34	.08	.35	4.41***
분노반추	→	대인관계문제	-.10	.06	-.10	-1.84
정신화 실패	→	대인관계문제	.84	.08	.86	10.87***

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86, p < .001.

반면, 연구모형과 동치모형인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은 그림 6 및 표 5과 같이 연구모형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와,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정신화 실패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74,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반추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40, p < .001. 또한 정신화 실패는 분노반추(β = .35, p < .001)와 대인관계문제(β = .86, p < .001)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반추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정신화 실패 및 분노반추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모형과 경쟁모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표집 횟수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매개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최종모형의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을 표 6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신화 실패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744, p < .001, 95% CI=[.568~.922]. 이를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정신화 실패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정신화 실패가 단순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계선

표 6.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경로	종속변인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95%신뢰구간	
			LO	HI
경계선 성격특성→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	-.025	-.158	.114
경계선 성격특성→정신화 실패	대인관계문제	.744***	.568	.922
경계선 성격특성→분노반추→정신화 실패	대인관계문제	.297***	.195	.421

*** p < .001.

www.kci.go.kr

표 7. 경쟁모형의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경로	종속변인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95%신뢰구간	
			LO	HI
경계선 성격특성→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	-.016	-.106	.069
경계선 성격특성→정신화 실패	대인관계문제	1.016***	.863	1.234
경계선 성격특성→정신화 실패→분노반추	대인관계문제	-.009	-.058	.037

*** $p < .001$.

성격특성이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의 순차적 경로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추정치도 유의하였으며, $B = .297$, $p < .001$, 95% CI=[.195~.421],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도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쟁모형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반추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95% CI=[-.106~.069])와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를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95% CI=[-.058~.037])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경쟁모형이 최종모형에 비해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노반추와 정신화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만18~29세의 여대생 350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매개변수인 정신화 실패와 분노반추가 각각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또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최종모형에서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경로와,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의 경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 분노반추, 정신화 실패가 모두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 세 변인이 대인관계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신화 실패를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화 실패가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여대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에 정신화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화를 연구해 온 선행연구들(Fonagy & Bateman, 2006)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Baer와 Martinez(2006) 의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들은 아동기 때 주 양육자와

www.kci.go.kr

의 관계에서 애착외상을 가지는데, 이런 애착외상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넘어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안정애착 형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정애착은 신체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 정서체험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Sroufe, 1996), 이러한 애착외상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정신과정에 접속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정신화 능력이 손상을 입게 된다(Fonagy & Bateman, 2006). 최근 국내연구에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고 있으며(김은희, 이인혜, 2016; 김정윤, 2015; 이윤연, 장현아, 2016; 차혜명, 2017; 하수홍, 장문선, 2013; 홍수연, 이승연, 2013), 이러한 애착외상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저해함으로써 정서조절의 곤란함, 충동성, 그리고 자기상(self-image)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애착관계에서 발달하는 정신화 능력이 낮게 형성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Fonagy(2001)는 발달 초기의 부정적 영향이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정신화가 제대로 진행되어질 때 부정적인 표상(representation)으로 인한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서반응이 완화되고(Fonagy, Target, Steele, & Steele, 1998),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것은 정서적 정신화에 압도되는 현상으로서 이는 정서적 경험을 반영적 인지적인 것과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화 실패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2a).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내담자들에게 정서적, 인지적 정신화가 통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Luyten et al., 2012),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신념과 같은 내적인 마음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야 할 것이다(Fonagy & Bateman, 2007). 그러므로 상담자의 정신화 능력은 내담자의 정신화 능력을 촉진하는 치료관계의 중요한 측면이고 변화 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가 경계선 특성을 가진 내담자와 이러한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애착과 관련된 결핍된 정신화를 발달시켜 준다면 내담자는 자동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줄어들고, 타인의 행동의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여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서적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정신화 기반치료(Mentalization-Based Therapy: MBT)를 지지하는데, 이 MBT는 최근 경계선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증, 고위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섭식장애, 학교폭력, 가족문제 등의 여러 심리영역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Choi-Kain & Gunderson, 2008). 정신화 기반치료의 핵심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에 관해 내담자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상태의 표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에 두며 그에 따라 내담자의 현재 마음상태인 사고, 느낌, 소망, 욕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것에 관여될 수 없는 무의

www.kci.go.kr

식과 같은 정신 상태에 관해 말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즉 의식 혹은 전의식의 내용을 지지하는 무의식적 생각이나 현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과거에 보다 덜 초점을 맞추고, 치료의 목적이 통찰이 아니라 마음상태에 대한 통합적이고 응집력 있는 표상을 성취하는 정신화의 회복에 있음이 중요하다. 또한 상담자는 갈등이나 양가감정, 무의식과 같은 복합적인 정신 상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내담자의 의식적인 사고의 경계를 약간 넘어서는 관념화를 지시하는 작은 해석들을 할 수 있다(Fonagy & Bateman, 2006). 이 치료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상태를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Fonagy & Bateman, 2007).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 알아가도록 안내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단정지어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최정숙, 김완일, 2016).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신화 실패로 가는데 직접효과를 갖는 동시에 분노반추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효과를 가지며,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도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는데 있어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의 사람들은 특히 애착이 기대되는 대인관계문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분노감정을 자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분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당시의 사건과 상황을 반추하는 인지적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노반추는 분노감정을 오히려 지속시키고 심화시킨다(Baer, Peters, Eisenlohr-Moul, Geiger, & Sauer, 2012; Gardner & Moore, 2008; Peled & Moretti, 2010). 이와 같이 증폭된 분노감정은 뇌를 과각성 상태로 만들게 되고, 이는 정신화 작업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대상피질과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Frith & Frith, 2003; Gallagher et al., 2000; 차혜명, 김은영, 2016에서 재인용), 명확한 정서인식과 성찰능력을 저해한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분노감정에 쉽게 빠지는데, 인지적 조절전략으로 시도했던 분노반추는 오히려 과각성 상태를 만들어 분노를 유발한 현상에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정신화의 실패모드인 정신적 동등모드,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의 어려움, 거부적 자기조망을 출현하게 만든다.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내담자가 정신화 실패로 가는데 있어 분노반추가 매개함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노반추를 줄이는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분노반추가 정신화 실패를 거쳐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정신화 실패가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이 인식된 분노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취했던 분노반추는 오히려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정신화 실패

www.kci.go.kr

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분노반응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분노반추는 공격성, 집중력 저하, 낮은 효율성과 문제해결력 감소와 연관이 있었으며(Bushman et al., 2005; Ellis & Tafrate, 1997; Sell et al., 2009),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부정적 생각이 증가하여 고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조윤경, 현명호, 2020), 분노감정을 억누르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상황을 불안해하여 회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은혜, 2010; 최임정, 심혜숙, 2010).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분노반추를 하는 것은 대인관계문제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가 치료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상관분석에서는 분노반추와 대인관계문제가 정적 관계였으나, 구조모형에서는 부적 관계가 된 것은 아마도 분노반추의 하위요인 중 원인반추가 다른 하위요인인 기억반추나 보복반추와는 달리 부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 우울, 불안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부정적 기능의 반추 외에도 긍정적 기능으로서 반추는 내적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도 있는데(김진영, 2000), 아마도 본 연구에서 원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선행연구에서도 분노를 유발한 후 반추를 시행한 실험장면에서 분노 기분이 줄어들고 긍정적 기분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전소현, 권호인, 권정혜, 2010).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분노반추의 각 하위요인별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는 정신화 기반치료(MBT)를 지지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MBT 치료 후 충동성, 자살 및 자해 성향, 우울 등의 증상이 일반치료 집단보다 경계선 성격 환자들에게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Laurenssen et al., 2014). 최근에는 여러 정신병리 치료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teman & Fonagy, 2012b). 국내에서도 청소년 품행장애, 우울, 애착과 외상 후 성장 등과 정신화의 관련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김경은, 정남운, 2018; 최현아, 2014).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정신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 지길 기대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내담자의 결핍된 정신화 수준은 대상과의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향상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경은, 정남운, 2018; 김태사, 2013; 박은주, 2013; Fonagy & Campbell, 2015; Stein, 2006), 이 연구결과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의 발달된 정신화 수준에 따른 내담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내담자의 정신화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결국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울 것임을 선행연구와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상담자 자신이 정신화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찰할수록 내담자의 심리적 치료와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www.kci.go.kr

한다.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정신화 실패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는 것을 이 연구가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어져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이 변인들을 포함시킨 집단용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단 상담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국내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내담자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학생 시기는 친밀감 달성이라는 발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문제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적 개입이 이루어져 이후 성인기 진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다섯째, 선행연구들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인인 아동, 청소년기 외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요인을 찾았다면 이 연구는 대인관계문제와 같이 현재 경계선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내담자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이에서 치료적 효과가 예상되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서도 이들의 일상의 불편감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모집단 모집의 한계가 있어서 성인기 초기 중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여대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성별과 연령을 다양하게 하고 모집단 수를 더 늘려서 연구한다면,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정신화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하여 정신화 연구에서 아직까지 정신화에 대한 객관적 척도가 통일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2016년 Fonagy가 업그레이드 된 정신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 타당화 되어서 정신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신화와 분노반추의 상호연관성을 찾았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빈약한 상태여서 아직은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서 치료적 변인으로서 타당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현정 (2009). 경계선적 성향을 보이는 여성의 표현예술치료 사례연구: 비온(Bion)의 '담아주기(Containment)'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경은 (2016).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 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은, 정남운 (2018).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39-764

김은희, 이인혜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03-1022.

김정윤 (2015). 회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의 관계: 고통 감내력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

www.kci.go.kr

문.
김지선, 현명호 (2012) 사회적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 지각, 청소년 연구, 19(2), 255-274.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태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역경을 통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 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2013). 거절민감성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설메 (2017).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주 (2013).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적 외상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 능력의 매개 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혜 (2010). 우울취약성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진숙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애진, 심혜원 (2018).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불안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93-1217
우희정, 박경 (2014). 경계선 성격특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86-286.
윤소리, 김정민, 서유진 (2017). 아동 및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07-124.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 장애연구, 24(1), 1-22.
이문희, 이수림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의 핵심적 요인 : 정신화의 이해와 적용.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인간연구, 27, 95-139.
이윤연, 장현아 (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32(3), 241-255.
이종환, 곽호완, 이상일, 장문선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군의 정서조절 능력: 억제 기능, 과민반응, 조절곤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43-565.
임선영, 이영호 (2017).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565-585.
임종민, 장문선, 이종환 (2019).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 집단의 정서경험과 대상표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091-1118.
전소현, 권호인, 권정혜 (2010). 분노에 대한 반추, 주의분산 및 긍정적 재평가가 기분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367-386.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젱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개별성, 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윤경, 현명호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1), 207-223
차혜명 (2017). 한국형 성찰기능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기방임과 경계선 성격성향 간의 관계에서 유기도식과 정신화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차혜명, 김은영 (2016).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통한 애착 이론과 정신분석의 재조명-정신화의 경험적 기반과 측정의 임상적 함의.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5(1), 167-190.
최두환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www.kci.go.kr

최소연, 이민규, 육영숙 (2017).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특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165-182.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최정숙, 김완일 (2017). 병사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신화 실패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289-312.

최현아 (2014).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정신화 능력이 품행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특성간의 관련성에서 거절 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홍상황,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19(1), 161-177.

홍수연, 이승연 (2013).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003-3021.

Allen, J. G., Fonagy, P., & Bateman, A. W. (2008). *Mentalizing in Clinical Practi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ub.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 C.: Author.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Baer, J. C., & Martinez, C. D. (2006). Child maltreatment and insecure attachment: a meta analysis.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3), 187-197.

Baer, R. A., Peters, J. R., Eisenlohr-Moul, T. A., Geiger, P. J., & Sauer, S. E. (2012). Emotion-related cognitive process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5), 359-369.

Baer, R. A., & Sauer, S. E. (2011).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ve rumination, anger rumin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2), 142-150.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Bateman, A., & Fonagy, P. (2003).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sts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atients treated with psychoanalytically oriented partial hospitalization versus general psychiatric car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1), 169-171.

Bateman, A. W., & Fonagy, P. (2006).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actical guid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Bateman, A. W., & Fonagy, P. (2012a), Individual techniques of the basic model,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pp.67-80), A. W. Bateman(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Bateman, A. W., & Fonagy, P. (2012b),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Handbook of mentalizing in mental health practice* (pp.289-308), Bateman,

www.kci.go.kr

A., & Fonagy. P.(ed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teman, A., & Fonagy, P. (2013).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Psychoanalytic Inquiry, 33*(6), 595-613.

Beck, A. T., Davis, D. D., & Freeman, A. (Eds.). (2015).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Guilford Publications.

Beck, A. T., Freeman, A., & Davis, D. D. (2007). *Cognitive Therapy o 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Bouchard, M., Target, M., Lecours, S., Fonagy, P., Tremblay, L. M., Schachter, A., & Stein, H. (2008). Mentalization in adult attachment narratives: Reflective functioning, mental states, and affect elaboration compared, *Psychoanalytic Psychology , 25*(1), 47-66.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Chiesa, M., & Fonagy, P. (2014). Reflective function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adversity, personality disorder and symptom distres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8*(1), 52-66.

Choi-Kain, L. W., & Gunderson, J. G. (2008). Mentalization: ontogen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9), 1127-1135.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omes, G., Czieschnek, D., Weidler, F., Berger, C., Fast, K., & Herpertz, S. C. (2008).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2), 135-147.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Ellis, A. E., & Tafrate, R. C. (1997).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Fonagy, P. (2015). Mutual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rapeutic action: A reflection on the contributions of Ed Tronick to developmental and psychotherapeutic thinking. *Psychoanalytic Inquiry, 35*(4), 355-369.

Fonagy, P., & Bateman, A. W.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11-430.

Fonagy, P., & Bateman, A. W. (2007). Mentaliz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ental Health, 16*(1), 83-101.

Fonagy P., & Campbell C. (2015). Bad blood revisited: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31*(2), 229-250.

Fonagy, P., & Target, M. (1996). Playing with reality: Theory of mind and the normal development of psychic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7*, 217-233.

Fonagy, P., Target, M., Steele, H., & Steele, M. (1998). *Reflective-functioning manual, version 5.0, for application to adult attachment interviews. London* : University College London.

Gardner, F. L., & Moore, Z. E. (2008). Understanding clinical anger and violence: The anger avoidance model. *Behavior Modification, 32*(6), 897-912.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www.kci.go.kr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ausberg, M. C., Schulz, H., Piegler, T., Happach, C. G., Klopper, M., Brutt, A. L., & Andres, S. (2012). Is a self-rated instrument appropriate to assess mentalization in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Development and first validation of the Mentalization Questionnaire (MZQ). *Psychotherapy Research, 22*(6), 699-709.

Kimberly, Glenn (2007).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s and borderl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2*(2), 193-200.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1), 1-39.

Laurenssen, E. M., Hutsebaut, J., Feenstra, D. J., Bales, D. L., Noom, M. J., Busschbach, J. J., & Luyten, P. (2014). Feasibility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symptoms: A pilot study. *Psychotherapy, 51*(1), 159.

Lieb, K., Zanarini, M. C., Schmahl, C., Linehan, M. M., & Bohus, M.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9432), 453-461.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

Luyten, P., Van Houdenhove, B., Lemma, A., Target, M., & Fonagy, P. (2012). A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functional somatic disorders.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26*(2), 121-140.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 (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s of attachment.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127-159.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Professional Manual.* Florida,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Paris, J. (2007). The n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ultiple dimensions, multiple symptoms, but one categor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5), 457-473.

Peled, M., & Moretti, M. M. (2010). Rumination on rumination: Are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differentially related to aggression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ural Assessment, 31*(1), 108 - 117.

Peters, J. R., Geiger, P. J., Smart, L. M., & Baer, R. A. (2014). Shame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anger and anger ruminatio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1), 1-9.

Putnam, K. M., & Silk, K. R. (2005). Emotion dys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4), 899-925.

Rogers, W. M., & Schmitt, N. (2004). Parameter recovery and model fit using multidimensional composites: A comparison of four empirical parceling algorith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3), 379-412.

Sansone, R. A., & Sansone, L.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and obesity.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10*(4), 36-40.

Sarason, I. G., Pierce, G. R., & Sarason, B. R. (1990).

www.kci.go.kr

Social support and interactional processes: A triadic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4), 495-506.

Selby, E. A., & Joiner Jr, T. E. (2009). Cascades of emotion: The emerg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m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3), 219-229.

Sell, A., Toddy, J., & Cosmides, L. (2009). Formidability and the logic of human ange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6*(35), 15073-15078.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in, H. (2006). Does mentalizing promote resilience? In J. G. Allen, P. Fonagy (Ed). *Handbook of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pp.305-326). Chichester, UK: Wiley.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Thomsen, D. K.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rumination and negative affect: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0*(9), 1216-1235.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Yen, S., Zlotnick, C., & Costello, E. (2002). Affect regulation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10), 693-696.

원고접수일: 2020년 3월 24일
논문심사일: 2020년 4월 2일
게재결정일: 2020년 4월 21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0. Vol. 25, No. 3, 585 - 610

The Influ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Anger Rumination

Heesook Choi
Samsung Appletree Psychiatric Clinic

Yunga Ju
Korean Counsel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ization and anger rumination in the influence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50 female university students age 18 29 living in all parts of Korea using a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 sc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scale, mentalization scale, and anger rumination scale. Using the SPSS and the AMO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all pathways except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anger rumina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were statistically-significant. Second, although the direct effect from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was not statistically - significant,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creased mentalization failure and indirectly contribu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is implies that mentalization failure is a perfect mediating factor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ird, anger rumination and mentalization failure were sequentially mediated between the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e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ffect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rough mentalization failure, and at the same time influ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anger rumination and mentalization failures sequentially. Additio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words: female college students,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mentalization, anger rumination

www.kci.go.kr